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 (고전/5:51-58)

## 교황 “결국 이 악마에서 해방될 것”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최대 축일인 부활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4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전날 이탈리아 공영방송 등에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지금은 모든 이에게 매우 어려운 시간”이라며 “역병을 피하고자 가족들과 함께 전례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생각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교황은 이어 집에 갇힌 아이와 젊은이, 환자, 홀로 남겨진 노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 교도소 수용자, 거처가 없는 노숙인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애정과 친밀함을 전했다. 아울러 환자를 치료하고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는 이들을 ‘영웅’이라고 칭하며 경의를 표하면서 “이 시간을 활용해 어려움에 빠진 이웃과 가장 외로운 이들을 돌보며 관대해지려 노력하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교황은 인류가 결국 이 역경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도 피력했다.

교황은 “부활절의 믿음은 희망을 키운다.”면서 “그것은 악마, 이 역병에서 끝내 해방되고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과 인내 속에 더 좋은 시간을 준비하자.”며 “주님은 곧 우리 모두를 악마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로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한편, 교황은 이탈리아에서 최악의 인명 피해를 보고 있는 북부 롬바르디아의 베르가모 지역의 ‘교황 요한 23세 병원’에 6만 유로(약 6만 5천 달러)를 기부했다고 이탈리아 ANSA 통신이 보도했다.

가톨릭 재단에서 설립한 이 병원은 베르가모 지역 환자 치료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교황의 기부금 가운데 일부는 베르가모 내 새 병원에 설립에 쓰일 것이라고 알려졌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 1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무력해 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의 하나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죽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5)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나는 일만큼 멋진 일은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여 나는 일만큼 자유롭고 여유로운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외침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부활의 삶을 내 대신 먼저 사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죽은 지 삼 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은 다음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자유롭고 여유롭고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 2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

사람의 가치는 무슨 일에 힘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했고 드로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케도니아에 가서 선교했고 에베소와 두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분부를 받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한 평생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 3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

사도 바울은 전에는 땅을 바라보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늘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미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스테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

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행 7:56).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후 결산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이 하늘에서 자기를 향해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이시니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전 4:4,5).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후 5:1,2,8).

사도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수고 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 나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땅을 바라보며 땅에 얽매어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김명혁 목사-

# 회사,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크레딧!!

## 개인 크레딧 & 비즈니스 크레딧 상향조정, 용자 저희가 도와 드립니다



- 개인 크레딧** | 크레딧교정, 크레딧카드 빚 탕감 및 이자율 조정 상담
- 크레딧 빌드업** | 주택 렌트비 크레딧 리포트에 반영 및 다양한 솔루션 제공으로 신용 점수 급상승 가능
- 개인용자 상담     최대의 크레딧라인 조성     신용불량자 신용거래 즉시가능
- 비즈니스 크레딧** | 비즈니스 크레딧 생성 및 빌드업에 관한 토탈 컨설팅
- 비즈니스 용자** | 비즈니스 및 개인 신용 상태에 따른 맞춤형 용자 프로그램

유컨설팅은 공인 세무, 법무 법인이며, 6개의 지사 중 OC와 LA 오피스가 한인 담당입니다

예약상담 **714-989-1231**  
14730 Beach Blvd, #233, Buena Park, CA 90638

예약필수 **213-973-1183**  
3600 Wilshire Blvd, LA, CA 90010

